

단풍

가을이 빨리 찾아왔다. 그렇게 빨리 오면 더 오래 함께 할 줄 알았더니 지난해에 비해 가을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래 붙어 있을 줄 알았던 이파리들이 빨리도 변하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왜 그런지 올해는 내 마음에 빨리 지고 있는 단풍이 아쉽기만 하다. 그 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달아간다는 것일까? 너무나 아쉬워 일주일간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카메라를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다. 마지막 단풍을 놓치기 싫어서였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카메라 렌즈로 보는 단풍은 더욱 아름다웠고 그래서 그런지 더 아쉽기만 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도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또한 하나님 섭리의 시간대는 어찌 그렇게도 틀림이 없을까? 신기하기만 하다. 놀랍기만 하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색이 변한 이파리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서 아름다움이지만 나무에게는 아픔이라는 것이다. 나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의 상상의 나라에서 만큼은 그렇다. 나무 이파리가 살만큼 살고 붙어 있을 만큼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 바로 전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이파리의 색을 변하게 하고 떨어져 겨울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무의 죽음과 같은 아픔이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로 부르실 때에 단풍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세상은 푸르지 않으면 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태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산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리라.

하나님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라고 하시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신다. 그 아름다운 삶은 단풍과 같은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모두 드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볼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을 말한다.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도피성과 같고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에 끌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다.

가을 아름다움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헌신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가을의 단풍과 같은 아름다움에 세상이 흠뻑 취하게 될 줄 믿는다. 적어도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물이 바 را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말씀일 것이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 단풍을 보는 것 같은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는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